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1. 11.(수) 11:00 < 1.12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1. 11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 조수정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 문경준 (044-203-5622)

「국제 통상 중추국가」로의 전진

- 통상교섭본부장, 「통상교섭민간자문위」에서 통상정책 비전 제시 -
- 20개국과 무역투자프레임워크 체결로 무역·투자·공급망·에너지 협력 강화-

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**(이하 본부장) 참석 하에 1월 11일(수), 14:00에 「**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**」를 개최했다.

○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**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**하고 이에 대한 **우리 통상의 대응 방안**에 대해 논의했다.

<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요 >

- (**일시/장소**) '23. 1. 11. (수), 14:00~15:30 / 서울 롯데호텔
- (**참석자**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·통상차관보·통상정책국장 등
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19명(위원장 : 정인교 교수)
- (**논의**)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(산업부), '23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(무역협회)

□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**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**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**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**될 것이라고 진단했다.

○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**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**하고 **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**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, 이를 위한 앞으로의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.

○ 또한, 이 회의를 주재한 **정인교 위원장**은 "現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**통상정책·협상의 중요성**이 커진 만큼, 오늘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"이라고 언급했다.

「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」 주요 내용

□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**美·中 경쟁**과 **자국우선주의 확산**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*되고, **디지털·그린 전환**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**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* (美) 반도체과학법, 인플레감축법(IRA) 등, (EU)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핵심원자재법 등
** (美) 기후변화정보 공시 의무화('22.3월), (EU) 플랫폼 기업 자사 앱 우대 금지('22.5월)

○ 또한, 美·中 패권 경쟁,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**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수요도 확대**되고 있다.

□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**글로벌 연대를 강화**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,

○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**선진 통상규범 논의**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경제환경,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**글로벌 투자·기술·인력을 유치**할 필요가 있다.

□ 이에 산업부는 「**글로벌 통상 중추국가**」**로의 전진**을 목표로,

○ ① **글로벌 연대**를 통한 시장·공급망 다변화, ② 新통상 블록·분야 **선진 통상규범** 주도, ③ **글로벌 투자·기술·인력 허브**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.

1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·공급망 다변화

□ **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해 新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.**

○ (TIPF)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**무역투자프레임워크*** (TIPF)를 통해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의 場을 마련한다. **'23년 20개 이상 국가**와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.

* Trade &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: 무역·투자·공급망·에너지 등

○ (新FTA) 기존 FTA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, 시장 개방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**新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* 방식**으로 추진한다. **'23년 10개 이상 국가**와 新FTA 타결을 목표로, 풍부한 자원·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.

*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: FTA + 강화된 경제 협력

□ **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.**

○ 美·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**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**을 강화하고, 우리 **수출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과의 소통**도 더욱 강화한다.

□ **자원 부국·기술 선진국과 핵심 광물·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.**

○ 튼튼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 핵심 광물·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**공급망 협력** MOU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다.

2 新통상 블록·분야의 선진 통상규범 주도

□ **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한다.**

○ (IPEF)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·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**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**(IPEF) **성과 도출**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.

○ (CPTPP·RCEP) 관계부처 및 국내 업계·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**CPTPP 가입 여건을 조성**하고, RCEP 이행체계 구축,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**RCEP의 활용도를 제고**한다.

* CPTPP :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'18.12월) → 日·캐나다·호주 등 11개국
RCEP :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'22.2월) → 韓·中·日·호주·ASEAN 등 15개국

○ (WTO) 분쟁 해결 제도 기능 정상화, 투자 원활화 협상* 등 조속한 성과 창출을 통해 WTO 개혁에 기여한다.

* 투자 조치 투명성 강화, 절차 간소화 추진(韓·칠레 공동의장, 112개국 참여)

□ **新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.**

○ (**디지털**) 빠르면 '23년 1분기 중 **DEPA*** **가입 협상 타결, IPEF 디지털 협상**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반영(중소기업·스타트업 진출 원활화, 디지털 표준 협력 등)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.

*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→ 현재 싱가폴·뉴질랜드·칠레 참여 중

○ (**환경**)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*(TESSD) 등을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그린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.

* ① 각국 기후 조치의 무역장벽화 방지, ② 환경상품·서비스 자유화 기반 조성

○ 산업부는 新통상 이슈 선점을 위해 '23.1.1일부로 통상교섭본부 내 '新통상전략지원관'을 신설했다. (신통상전략과 + 디지털경제통상과 + 기후에너지통상과)

3 글로벌 투자·기술·인력 허브로의 도약

□ **첨단업종에 대한 외투·기술·인력이 모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구축한다.**

○ (**외투**)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첨단전략기술,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 등에 대한 **현금지원 강화**를 추진*한다.

* 예 : 「외촉법」 시행령 정비 → 공장 신·증설 外 공정 교체 투자에도 현금지원 추진
「현금지원요령」 개정 → 첨단전략기술 현금지원 확대(40% → 50%) 추진

○ (**기술**) 미래차(체코, 스웨덴)·청정수소(호주) 등 첨단 분야 R&D 협력을 강화한다.

○ (**인력**) 글로벌 협·단체, 해외 유수 대학 산학협력 조직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, 첨단업종 중심 국내·외 산업인력 교류를 확대한다.

□ **국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를 유도한다.**

○ (**규제 개혁**)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 기업,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,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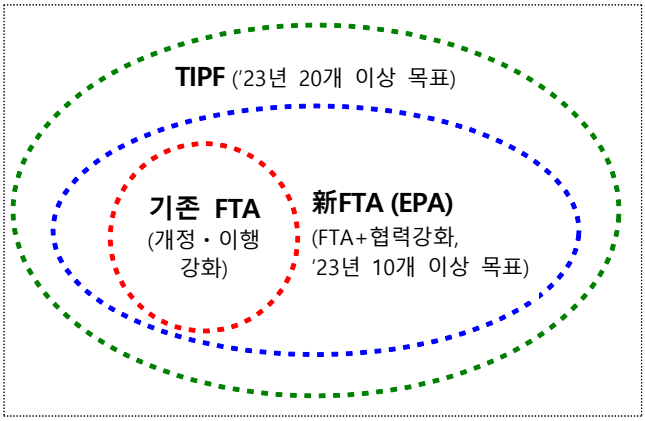
○ (**규제 정합화**)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**해외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**하고,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당국에서의 규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진행한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조수정 (044-203-5620)
		담당자	사무관	문경준 (044-203-5622)
		담당자	사무관	형건우 (044-203-562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한눈에 보는 통상정책 비전과 목표**

1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·공급망 다변화



⇒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으로 新시장 개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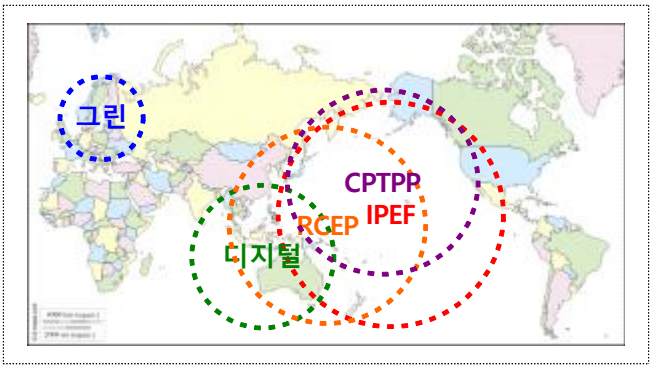
* (TIPF)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
  (新FTA) FTA에 新통상 분야 협력 가미

⇒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

* (美) 단계별 대응 시스템 마련
  (EU) 통상현안대책단 구성, 업계 소통 등

⇒ 자원 부국과 양자·다자 핵심 광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

2 新통상 블록·분야의 선진 통상규범 주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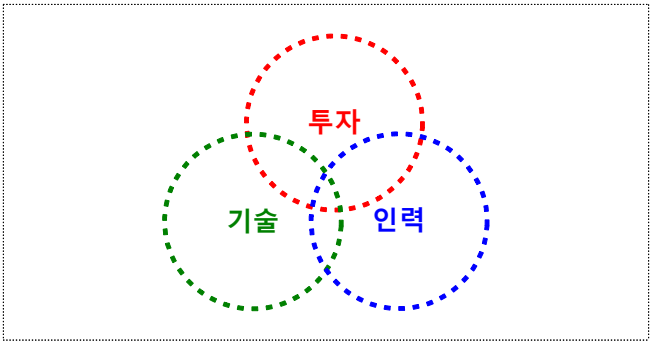
⇒ 주요 경제블록 통상규범 대응

* (IPEF) IPEF 협상 주도
* (CPTPP·RCEP) 우호적 역내 규범 마련
* (WTO) 투자원활화 협상 진전 등

⇒ 新통상 이슈 규범 협상 참여

* (디지털) DEPA 및 IPEF 디지털 협상 등
* (환경)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(TESSD) 논의 등

3 글로벌 투자·기술·인력 허브로의 도약



⇒ 첨단업종 외투·기술·인력 유입 환경 구축

* 외투 현금지원 및 기술·인력교류 확대

⇒ 국내 규제 개혁 및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화 유도

* 글로벌 서비스 도입, 규제 협력 등

⇒ 목표 : 「글로벌 통상 중추국가」로의 전진